

외국어고 및 자율형 사립고의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전형 실태*

백선희(白善晝)**

박진아(朴禎我)***

논문 요약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 입학에 대한 과도한 경쟁 유발, 이로 인한 중학교 교육의 파행과 사교육 유발에 대응하고 각 고등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2011학년도부터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되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 5년째를 맞고 있지만 도입 목적인 중학교 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인재 선발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 진단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통해 의도한 정책 목표-중학교 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인재 선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 외국어고 및 자율형 사립고 입학담당교사,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 중학교 3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중점 집단 면담을 통해 진단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중학교 교육에 부분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학부모들은 중학교 교육만으로는 준비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교육비 경감 역시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의 축소로 인하여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으나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면접과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사교육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막론하고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는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있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인재 선발보다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요소에 충실한 학생이 선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개선을 위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주요어 : 자기주도 학습전형, 외국어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고등학교 입학전형

* 이 논문은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고등학교 입학전형 변천 및 실태』 연구에서 확보된 데이터를 학술 논문의 형식에 맞게 재분석하여 작성한 것임.

** 제1저자

*** 교신저자

I. 서론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2011학년도부터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입학전형으로 특목고 및 자사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중학교 교육을 경험하면서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지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의도한 입학전형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도입 이전 특목고와 자사고는 주요 과목의 내신성적, 지필고사 및 경시대회 성적을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입학전형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전형요소는 중학교 단계부터 학생들간의 과도한 경쟁을 일으키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문제와 더불어 중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간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에 2009년 12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어고 등의 특목고 입학전형의 개선을 통하여 불필요한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고 교과지식의 일회적 평가가 아니라 평소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중시하는 고교 입시 전형 개선으로 중학교 교육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1).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 재학생 중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및 자사고의 재학생은 약 4.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통한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배경에는 특목고 및 자사고가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다. 오래 전부터 고등학교에 대한 평판은 명문대학 진학실적에 의해 결정되는데, 특목고와 자사고의 명문대학 진학 실적은 평준화 지역 일반고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이다(변수용·황여정·김경근, 2012: 134). 중학교 졸업생이 특목고와 자사고에 진학하려는 것은 명문대 진학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함이다. 한 실증 연구에 의하면, 가정 배경을 통제하고도 외고는 명문대¹⁾ 진학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드러냈다(변수용 외, 2012). 중학생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특목고와 자사고 입학은 명문대 진학을 위한 디딤돌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실제로 김미숙 외(2007)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중학교 학부모의 77%가 자신의 자녀가 특목고에 진학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특목고 및 자사고와 같은 성적 상위권의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제도는 학생 선발의 기능과 동시에 초·중학교의 교육내용 및 초·중학생의 교육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기능한다(김희규, 2010).

특목고와 자사고 입학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중학교 교육과 사교육비와 같은 우리 교육 현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기주도 학

1) 변수용 외(2012)의 연구에서는 한 일간지의 대학평가 순위를 참고하여 1-30위권 대학을 위세 높은 대학이라고 칭한 것을 이 연구에서는 명문대학교라 통칭하였다.

습전형은 도입부터 중학교 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인재 선발이라는 분명한 정책 목표에 기반을 두고 출발하였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입학전형으로 활용하고 있는 특목고 및 자사고에 대해 중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는 우리교육에 주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인해 중학교 교육이 활성화되고, 사교육비가 경감되며, 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적합한 인재 선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비단 특목고 및 자사고를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 입학전형의 정책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진단하여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우리의 교육적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내용 및 선행 연구 검토

1.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내용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시행 첫해인 2011학년도 신입생 선발에서는 외고와 국제고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자립형 사립고, 비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학교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4). 또한 대입의 입학사정관제와 유사하게 학교생활기록부, 학습계획서, 학교장 추천서 등을 전형 요소로 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평가하고, 영어 시험을 비롯한 각종 인증시험이나 경시대회 성적 등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 요소들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4).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실시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자기주도 학습전형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학교에 보급하고,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입시 사교육 영향 평가제 도입'을 통하여 고등학교의 학생 선발이 사교육비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6).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전형 요소 및 과정의 변천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시행 첫해인 2011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1단계의 영어 내신성적으로 1.5~2배수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전형 점수와 면접 점수의 합산이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2015학년도부터는 자기주도 학습전형 매뉴얼을 외국어고·국제고, 서울 방식 자율형 사립고, 서울 이외 방식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서울 이외 자율형 사립고의 내신성적 “반영 과목과 학년, 내신과 면접의 반영 비율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자율

로 결정하되, 내신성적은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한 성취도 수준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표 1> 2011-2014 자기주도 학습전형 대상 학교, 전형 요소 및 절차

| | 대상 학교 | 대상 학생 | 전형 절차 및 방법 | |
|------|------------------------------------------------------|-------------------------------------------------------|---------------------------------------------------------------------------------------|----------------------------------|
| | | | 1단계 | 2단계 |
| 2011 |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및 일부 자율학교 ²⁾ | | | |
| 2012 | 외국어고, 국제고, 비평준화 지역 자율형 공립고, 추천 이외 학교별 전형 실시하는 국제 중학교 | 지원 학생 전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20% 포함) | 영어 내신성적 ³⁾ (160점) + 출결 ⁴⁾ 정원의 1.5~2배수 선발(2014년도 하나고의 경우 2배수 선발) | 1단계 성적 + 면접 최종 합격자 선발 |
| 2013 | 외국어고, 국제고 추천 이외 학교별 전형 실시하는 국제중학교 | | | |
| 2014 |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하나고) | | | |
| | 외국어고, 국제고, 특성화중 등 전면 추천 이외의 학교별 전형을 실시하는 국제중학교 | 지원 학생 전원 (전·편입학,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⁵⁾ 포함) | 영어 내신성적(160점) + 출결 정원의 1.5~2배수 선발 | 1단계 성적(160점) + 면접(40점) 최종 합격자 선발 |
| 2015 |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서울 방식을 채택하는 서울지역 외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지원 학생 전원 (사회통합대상자 포함. 단, 미달일 경우 최대 10%까지 일반전형으로 충원가능) | 성적제한 없이 정원의 1.5배수 추천 선발 |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 | 서울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교별 선발을 실시하는 일반고등학교 | 자사고·일부 자율학교 ⁶⁾ | 내신성적 + 출결 정원의 1.5~2배수 선발 | 1단계 성적 +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2) 2011학년도 신입생 선발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활용한 자율학교는 양일고(경기), 익산고(전북), 한일고(충남), 공주대부설고(충남), 거창고(경남)이다.
 3) 영어 내신성적은 4개 학기 영어 환산점수의 합이며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시 자동 계산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6).
 4) 출결은 무단결석 일수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제하는 것이며, 가중치는 교육청·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적용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7).
 5) 2013년까지는 사회적배려대상자에서 2014년부터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사회통합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그 밖에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의미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2015. 9. 25.) 제91조의3 제3항)
 6) 충남 한일고, 공주대부설고, 전북 익산고, 경남 거창고 등(한국교육개발원, 2014: 62)

2014학년도에는 2012학년부터 중학교에 도입된 성취평가제의 영향으로 영어 내신성적의 산출 방식이 다소 복잡해졌다. 중2의 영어 성적은 성취평가제에 따른 성취도 수준으로, 중3의 영어 성적은 기존의 석차 9등급제 등급별 환산 방식을 적용하였다.

<표 2> 중 2성취평가제 성취도 수준별 환산방식

| 성취도 수준 | A | B | C | D | E |
|-----------|----|----|----|----|----|
| 부여 점수 | 5 | 4 | 3 | 2 | 1 |
| 학기당 환산 점수 | 40 | 36 | 32 | 28 | 24 |

주1: 중 2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학교의 경우는 2학년 한 학기 성적을 자유학기 성적으로 활용(예: 2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한 경우 2학년 1학기 성적을 2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

주2: 중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2학년 성취도 등급이 없을 경우 원점수를 활용하여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등으로 성취도 등급 부여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5: 8

2015학년부터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1) 외국어고·국제고, 2) 서울 방식 자율형 사립고, 3) 서울 이외 방식 자율형 사립고 및 일반고 등 세 유형으로 나누어 전형 요소 및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자사고의 경우 1단계 전형에서 내신에 관계없이 정원의 1.5배수를 추첨 선발하게 됨에 따라 내신성적 점수 순으로 정원의 1.5~2배수를 선발하는 서울 이외 지역의 자사고 입학전형과 구분됨에 따라 자사고 입학전형이 서울 방식과 서울 이외 방식으로 나누어 매뉴얼을 제작하게 되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 매뉴얼(한국교육개발원, 2015)에는 자기주도 학습전형 운영의 기본 원칙, 전형 절차 및 방법, 입학전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출 서류 작성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운영하면서 일어난 규정 위반 유형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명시하고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1) 자기주도 학습전형 정책 성과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도입 시의 정책 목표-중학교 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감소,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인재선발-가 뚜렷하게 제시되었으나, 그러한 정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기 어렵다. 예외적으로 박효정·김효원(2011)의 ‘고입 자기주도 학습전형 제도의 운영 보완 방안’연구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전형 제도의 추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수요가 전공 외국어에 대한 흥미가 있는 학생으로 축소되고, 사교육비가 감

소하였으며,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학교 교원은 진학 지도에 있어 자신들의 역할이 강화되어 중학교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정책 목표가 긍정적으로 달성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오범호·김성열·오세희 등(2013)은 ‘자율형 공·사립 고등학교의 자기주도적 학습전형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 입학전형 업무 담당자의 인식 분석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는데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시행을 통해 정책 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평가하기 보다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탐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입학전형위원을 확보하고 자기주도 학습전형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전형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단위학교의 자기주도 학습전형 제도 도입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각 단위학교의 수준에서는 학교의 특성에 부합하는 입학전형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정책 성과를 평가한 연구로는 이재덕·유술아·차성현·정성수·이희숙·김혜영(2014)의 연구가 가장 최근에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어 고등학교의 자기주도 학습전형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창의적 인재 양성의 기초 마련, 학교 설립 목적에 맞는 인재 선발, 입시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대응, 특목고 입학 경쟁 완화 및 중학교 교육 정상화의 평가들에 근거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주도 학습전형 실시 이후 입학한 학생들의 국어와 수학 점수가 향상되고, 대학 진학을 역시 자기주도 학습전형 이전의 학생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창의적 인재 양성의 기초 마련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어학 계열 진학자의 비율이 약간 높아져 설립 목적에 맞는 인재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입시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는 외국어고 진학 학생의 영어 교과 사교육 시간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낮은 편이고, 사교육 참여가 매년 낮아지고는 있지만 자기주도 학습전형 준비로 인한 사교육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특목고 입학 경쟁 완화 및 중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기주도 학습전형 실시 이후 경쟁률이 낮아졌고, 외국어고 입학 학생이 중학교에서 다양한 학교행사 및 동아리 등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비록 외국어고의 경우에 한정되나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본래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외국어고의 창의 인재 양성의 기초 마련이 국어와 수학 점수의 향상과 관련이 있는지, 영어 교과만의 사교육 시간 감소를 전체적인 사교육 감소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부족하여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정책성적을 분명히 드러내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자기주도 학습전형과 사교육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정책 목표가 중학교 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감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인재 선발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보고서 이외의 연구에서 중학교 교육 정상화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인재 선발의 문제는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 가장 병폐로 인식되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 진학과 사교육 역시 선행연구에서는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로 드러났다.

이미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박현정·이준호(2009)의 연구에 따르면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 고소득층 학생,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높은 학생,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분석한 결과, 특수목적고등학교 진학계획은 사교육 참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사교육비 지출규모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군달·김현진·이수정(2011)의 연구에서도 특목고 진학계획이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출 규모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 초기에도 특목고 진학계획은 여전히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현(2012)은 특수목적고등학교 진학계획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학업성적, 부모의 교육지원 수준, 부모의 교육기대 수준이 초등학교 6학년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진학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목적고등학교 진학계획을 가진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 이전과 이후의 사교육비 지출규모를 비교하지는 못하였으나,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특수목적고등학교 진학계획이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진학 계획 자체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지 자기주도 학습전형 자체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엄밀히 따지면 자기주도 학습전형과 사교육의 관계를 조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행된 연구인 이재덕 외(2014)의 연구에서 외국어고 입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전형 준비 관련 사교육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영어 한 과목의 사교육 시간이 감소한 것에 불과해 전체적인 사교육비 감소라고 보기에는 미진한 면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시행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효과나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진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정책 목표 달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둘째,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분명한 정책 목표-중학교 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인재 선발에 기반하여 도입되었고 이에 대한 성과평가를 이재덕 외(2014)의 연구에서 시도한 바 있으나 주로 양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경향성을 진단하였고 또한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는 자율형 사립고와 관련된 내용은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점에 터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고와 자사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도입 목적인 중학교 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인재 선발이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그 실태를 진단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중점 집단 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실태를 진단하기 위하여 중점 집단 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FGI는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그 집단이 비록 대표적이지는 않더라도 구체적인 집단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이루어진다(Lederman, 1990).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경험한 집단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준비과정을 포함한 경험과 그 경험의 교육적 결과를 진단하기 위하여 FGI를 연구 방법으로 선정하고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FGI 참여 대상에게 질문을 하고 응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준비과정과 그로 인한 교육적 결과를 진단하기 위하여 외국어고 및 자사고 1학년 학생의 학부모, 외국어고, 자사고 등의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의 교사,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는 외국어고와 자사고의 입학담당교사 대상으로 FGI 대상을 선정하여 반구조화된 면담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연구의 목적에 맞는 큰 방향성 아래에서 FGI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 보다 풍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으며 각 대상별 면담 내용은 <표 3>과 같다. 대상별로 해당되지 않는 질문은 생략하였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입학 담당 교사에게는 중학교 교육 정상화와 관련된 내용을, 중학교 교사에게는 고등학교 유형별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인재 선발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지 않았다.

<표 3> FGI 대상별 인터뷰 질문 사항7)

| 영역 | 고등학교 입학 담당 교사 | 고등학교 학부모 | 중학교 교사 |
|------------------|---------------------------------------------------------------------------------------------------------------------------------------------------------------------|-------------------------------------------------------------------------------|----------------------------------------------------------------------------------------------------------------|
| 중학교 교육 정상화 | | 특목고 혹은 자사고 진학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준비를 위해 중학교 교육에 어떠한 도움을 기대하셨고, 그것이 성취된 정도는 어떠한가요? |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중학교에서는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된 이후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이나 평가 방법에 있어 변화된 점은 없습니까? |
| 사교육 경감 |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이 입학전형 준비를 위하여 사교육을 받은 흔적이 보이는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전형 요소에 그러한 흔적이 가장 많이 보이는지요?? |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녀가 사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특히, 어느 전형요소를 위하여 사교육을 받게 하셨습니까? | 귀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준비하면서 사교육에 의존하는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까? 어떠한 전형요소를 준비하면서 사교육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
| 설립 목적 부합하는 인재 선발 | 입학전형 요소 중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는 무엇입니까?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실시되기 이전과 이후(2011년 전후)로 입학하는 학생의 특성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시행 이전과 이후 학생 선발에 있어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 자녀를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시키신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

2. 연구 대상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실태를 진단하기 위하여 자기주도 학습전형과 관련된 주체들-외국어고 및 자사고의 입학 담당 교사, 고등학교 1학년의 학부모, 그리고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 교사를 FGI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대상별·고등학교 유형별로 FGI를 진행하였다.

우선 고등학교의 입학 담당 교사는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학교 홍보부터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실시와 선발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외국어고의 경우 지역에 따른 외국어고의 수를 고려하여 서울지역 1개교, 경기지역 1개교, 서울 및 경기 이외 지역의 2개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의 입학부장 혹은 입학담당관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

7) 실제 FGI에서는 전체 연구를 위한 모든 질문이 인터뷰 대상에게 주어졌으나 이 표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해당하는 질문만을 발췌하여 포함하였음.

하였다. 자사고의 경우는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립고)와 자율형 사립고로 출발한 경우(이하 자율고)를 별도로 표집하였는데, 자립고의 경우 총 7개교 중 참석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3개교의 입학부장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자율고의 경우 서울 이외 지역의 권역을 고려하여 강원, 충청, 경상, 전라에서 각 1개교씩을 시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담당 장학사의 추천을 받아 각 학교의 입학담당교사들을 FGI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고등학교 유형별로 FGI가 이루어졌는데, 연구자의 질문에 각 학교별 교사가 자교의 상황을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FGI에 참석하는 입학담당부장 혹은 입학담당관은 동 유형의 고교별 모임 혹은 연수 등을 통해 이미 서로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입학전형 및 고교 학사 전반에 관련된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학교의 상황이 유사한 경우에는 1-2개 학교의 교사가 응답을 하고, 다른 학교의 교사들이 공감을 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외국어고와 자사고 1학년 학부모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을 모두 거친 학부모들이라는 점에서 현재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에 비해 전체적인 경험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고등학교의 교사와 학부모를 동일한 학교에서 선정함으로써 같은 상황(자기주도 학습전형)에 대해 다른 주체들의 경험을 진단하고자 의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외국어고, 자율고, 자사고의 FGI에 참석한 교사들에게 학부모의 추천을 부탁하여 FGI의 참여 대상을 섭외하였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어고, 자립고, 자사고의 참여 교사와 학부모의 학교가 일치하고 있는데, 다만 C외고 학부모는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하였고, M자율고 학부모는 교사가 추천을 어려워하여 FGI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학부모 FGI 역시 연구자의 질문에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고등학교 교사 FGI와 마찬가지로 공통된 경험에 대해서는 1-2명의 학부모가 경험을 얘기하고 다른 학부모들이 동의하거나 의견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중학교 3학년 교사는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을 중학교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진단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FGI에 참여할 중학교 교사를 섭외하기 위하여 권역별 고등학교 입학담당 장학사의 추천을 받아 포함하였고, 서울 지역의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 3학년 담당 교사 1명은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여 추가하였다. 중학교 교사 대상 FGI 역시 고등학교 교사 및 학부모 대상 FGI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FGI 대상 및 개최일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고등학교 입학 담당 교사는 외국어고 4명, 자립형 사립고 3명, 자율형 사립고 4명, 고등학교 학부모는 세 가지 고교 유형 모두 각 3명, 그리고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 교사는 5명을 FGI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FGI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가량 진행되었으며 면담 내용은 녹음하여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4> 중점 그룹 인터뷰 대상, 소속 및 개최일

| 고교 유형 | 면담 대상 | 참석자 소속 학교 ⁸⁾ | 개최일 |
|-----------------------|---------------|---------------------------------|---------|
| 외국어고 | 입학담당교사 | A외고, B외고, C외고, D외고 | 8/21(금) |
| | 학부모 | A외고, B외고, D외고 | 8/31(월) |
| 자립형 사립고 ⁹⁾ | 입학담당교사 | F자립고, G자립고, H자립고 | 8/25(화) |
| | 학부모 | F자립고, G자립고, H자립고 | 8/20(목) |
| 자율형 사립고 | 입학담당교사 | J자울고, K자울고, L자울고, M자울고 | 8/19(수) |
| | 학부모 | J자울고, K자울고, L자울고 | 8/24(월) |
| 특목고·자사고 진학을 높은 중학교 | 3학년 (부장)교사 | N중학교, O중학교, P중학교, R중학교, S중학교 | 8/27(목) |

IV. 연구 결과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중학교 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감소, 고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인재선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9년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에 의해 2010년부터 도입되었다(이재덕·유술아·차성현·정성수·이희숙·김혜영, 2014). 이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의 교과 지필 고사 중심의 선발이 외국어고와 자사고를 지망하는 중학생들 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면서 학교 교육보다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또한 외국어고나 자사고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인재선발보다는 대학 입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제안된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그 본래의 목적인 중학교 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고등학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인재선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외국어고 및 자사고의 입학담당부장 혹은 입학담당관, 외국어고 1학년 학부모, 외국어고와 특목고 진학률이 비교적 높은 중학교 3학년 담당교사와의 FGI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1. 중학교 교육에의 영향

자기주도 학습전형 정책의 도입 배경에서는 그 첫 번째 목표로 중학교 교육 정상화를 꼽고

8) 연구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터뷰 참여 대상의 소속 학교명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9) FGI를 계획할 때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 자사고와 이후 자율형 사립고로 출발한 자사고는 설립배경과 시기가 다른 만큼 입학전형의 실태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상하여 현재 자립형 사립고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나 전자의 유형(자립고)와 후자의 유형(자울고)로 나누어서 입학담당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 두 유형의 학교 입학전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연구 결과는 자율형 사립고로 통합하여 기술하였다. 다만 FGI 대상자는 구분하여 전자를 자립고, 후자는 자울고로 소속을 명시하였으나 연구 결과에서는 모두 자사고로 표시하였다.

있지만 막상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의하는 일은 쉽지 않다. 다만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출발점인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의 추진 배경에서 사교육 유발 최소화와 더불어 교과지식의 일회적 평가가 아닌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중시하여 중학교 교육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와(교육과학기술부, 2009) 자기주도 학습전형 매뉴얼(한국교육개발원, 2015)에 제시된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의 잠재능력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평가방식 전환 필요’라는 추진 배경 등을 통해 중학교 교육 정상화의 의미를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교육 정상화보다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중학교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보다 초점을 맞춰 그 실태를 진단하였다.

1) 자기주도 학습전형 준비로 인한 학교 내 활동 및 수업참여의 활성화

중학교 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어고·자사고 입시가 중학교 교육에 당장의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나 자기주도 학습전형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을 중시함으로써 중학교 내에서의 동아리 활동 등이 활성화되고, 학교 수업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아무래도 수업방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지만 학생중심의 동아리 활동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특히 외고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도 자발적으로 영어 자율동아리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사영역 때문에 이제 자기 반에서 또는 조금 친한 아이를 학습 주도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물론 이제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그런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R중학교 교사)

학부모 역시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자녀의 활동에 나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즉, 성적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던 방식과는 달리,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도록 유도했다는 측면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었다.

애는 친구 멘토-멘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것도 자소서에 쓰기 위해서 선생님이 권해줘서 했거든요. 자기네 반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하고 멘토하고 멘티로 짝을 지어 줬어요. (중략) 친구가 물어보면 가르쳐 주고 그런 면에서 친구를 가르쳐 주면서 도움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나만이 아니라 재가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재를 가르치면서 더 많이 알아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G자사고 학부모)

이처럼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본래 의도대로 학생들이 외국어고 자기주도 학습전형 준비를 위

해 교내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어고의 경우 1단계 전형에서 영어 내신성적만을 반영하고, 지원 학생 대부분이 1등급이라는 점에서 중학교에서 내신성적 산출 시 영어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시험문제를 어렵게 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역시 외국어고나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에서만 나타날 수도 있다.

결국은 영어 내신성적을 올리게끔.(해요.) 그 1등급, 대부분이 1등급을 받아야지 외고도 갈 수 있니까. 1등급 받은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 5학년, 6학년 때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왔고, 지금 와서 학교에서 내신성적 1등급, 2등급. (하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과서 가지고만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신 1등급을 올려서 특목고, 그 고등학교에 성적을 주려면 아이들 변별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변별력을 키우려면 시험을 어렵게 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S중학교 교사)

2) 자기주도 학습전형 준비에 있어 중학교의 역할 부족

학부모들에 따르면, 자녀의 외국어고·자사고 입학에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중학교로부터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포함한 고교 입시에 대한 중학교 교사들의 낮은 관심과, 정보의 부족 등을 들고 있다. 즉, 중학교에서 학생의 고교 진학 '결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뿐 정작 준비과정에서는 실질적 지도와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준비는 결국 학부모의 몫이 됨을 토로한다.

학교에서 도움 받는 부분은 ○○구에서는 굉장히 기대하기 힘들어요. 학교에서는 독서이력이나 성적관리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선생님들이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모르는... (F자사고 학부모)

그러나 중학교에서 도움을 받는 정도는 학교에 따라 혹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즉, 과거부터 졸업생들을 특목고, 자사고에 많이 진학시켜 온 경험을 가진 중학교 졸업생 학부모의 경우에는 중학교 교사로부터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준비에 있어 상당 부분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어느 정도 자기가 알고서 그걸 쓰면 담임선생님 같은 경우에 경험이 많으시니까, 자소서 같은 것도 다 가져오라고 해서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 면접지 같은 것도 질문지 조금 만들어서, 애 자소서를 읽었으니까 선생님 어떤 거를 질문해야 할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몇 번 해 주시고, 저희는 담임선생님 역할이 꽤 컸어요. (A외국어고 학부모)

2. 사교육비 경감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학교교육보다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즉, 지필고사를 폐지하고,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의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되도록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이 아닌 중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 스스로 준비하는 입학전형을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이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입학전형 금지, 학교별 필기고사 금지 및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전형 금지, 각종 경시대회, 인증시험, 자격증 등의 배제를 통해 선행학습의 유발요인 제거를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취지로서 도입된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그 본래의 목적인 사교육비 경감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부분적인 사교육비 경감

외국어고와 자사고의 입학담당 교사, 학부모, 중학교 교사는 자기주도 학습전형 실시 이후 부분적인 사교육비 경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외국어고의 경우 자기주도 학습전형 1단계에서 중학교 영어 내신성적과 출결로 학생을 선발한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지필고사를 보던 때와는 달리 1단계 전형에서 영어 한 과목만의 내신성적을 참고하기 때문에 영어 이외의 과목에 대해서는 사교육이 이전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방은 보니까 사교육이 많이 줄었죠. 준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옛날에 국, 영, 수 하던 비율은 줄어 들었는데 영어 한 과목만 오로지 해야 하니까 그거는 오히려 조금 늘은 것 같고. (B외고 입학부장)

자사고의 경우에도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고교 입시를 목적으로 한 사교육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고 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장점이 사회에 미친 영향 중 하나는 최소한 사교육이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해서 증가세를 좀 주춤주춤하게는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시내 조그만 학원들도 G자 사고반, F자 사고반 무슨 반이 하나의 상품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팔아먹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그런 것은 거의 죽었죠. 강남 교육 특구라고 하는 지역들만 살아 있는 거니까. (G자 사고 교사)

2) 고교 진학 후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은 여전히 존재

외국어고나 자사고 입학이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고의 경우, 입학전형에 영어 한 과목만의 내신성적이 반영되지만 외고 진학 후 궁극적으로는 '대학입학'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수학, 국어, 과학, 사회와 같은 교과들의 선행학습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외국어고 입시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영어 이외의 교과목들에 대한 사교육도 여전히 어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딱히 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로 사교육을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냥 수학 같은 것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영어학원은 다니지 않고, 그냥 방학 때 짬짬이 다녔고, 평소에는 학원은 별로 안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수학 다니고, 그러면서 그 정도로 사교육은 받았고요. (A외고 학부모)

자사고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선행학습 성격의 사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자사고에 입학한 후 성적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자녀를 자사고에 보낸다는 것은 입학 후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까지 미리 갖춰서 보내는 것을 의미했다.

우리 아이는 수학하고 영어만 했는데 거기 애들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안 하고 온 애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갔을 때 고생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애는 수학이 너무 좋아서 수학하고 영어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나까 좋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정도로만 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애들은 국영수 다해 오고 그 다음에 일어, 중국어. 일어는 1등급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해 갖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G자사고 학부모)

이처럼 자사고에 입학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입학 이후부터라고 인식되었다. 높은 수준의 수행평가 등 자사고에서 요구되는 활동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영어, 수학, 과학과 같은 교과목들에 대한 학습 시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고교 입학 전 선행학습의 여부와 정도가 고교 학업 성취 수준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변수로 작용한다고 여겨졌다. 만약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의도한 취지대로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채 자사고로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활동의 기회를 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사교육이 입학 전형의 변화와 상관없이 여전히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그 목적이 성공적인 대학 입학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교사들에 따르면, 학생들이 선행학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보니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로 나타났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주도학습을 해서 가는 애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할 기회와 역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선행학습 금지법이 있다고 해도 선행학습을 해서 아이들이 절대 시간이 부족해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자기주도학습이라든가 자기들이 소질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학원에 의해서 세팅되어지는 거예요. (O중학교 교사)

3) 자기주도 학습전형 준비를 위한 사교육의 출현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부분적으로는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선행학습 성격의 사교육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외국어고와 자사고 입학 준비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아울러 자기주도 학습전형 요소들에 대한 사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로 학원에서는 고등학교를 전국 자사고를 놓고 보는 거예요. 애를 어디로 보내면 좋겠나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학원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자기주도학습 그 자소서 쓸 때도 학원에서 계속 어떤 식으로 쓰고 그리고 이제 생활기록부를 가져와서 애가 이제 무슨 대회에서 입상하고 이런 거를 이제 요즘 쓸 수는 없지만 그런 걸 봐서... (H자사고 학부모)

자기주도 학습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각종 경시대회 수상경력과 같은 부분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자녀의 능력을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최대한 효과적으로 드러낼 것인가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학원이나 컨설팅 업체와 같은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에 더 의존하게 되며 특히 자사고 입학설명회 참석 후 사교육을 통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임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설명회를 이 학교, 저 학교를. 사람이 알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그냥 하면 되겠다, 너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학교 설명회 갈 때마다 말은, 우리는 뭘 안 본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는 말이 더 무서워요. 안 보지만 애를 평가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종합의견에다가 내가 무슨 상을 받은 걸 적을 수는 없지만, 종합의견에다가 애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수한 성적 종합 의견에 적은 거는 삭제할 못 하니까 그런 식으로 적어라, 녹여내라.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어려운 말이 그 말이야. 녹여내라. 내가 했던 거를 직설적으로 적지 말고, 했던 내용을 녹여 내라. 그걸 전문가가 아니면 어떻게 해. 갈 수밖에 없어요. (K자사고 학부모)

그러나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며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의미 있는 경험으로 인식되기

도 하였다.

갈 때마다 선생님들 침삭을 해 주시고, 또 받아서 자기가 또 써 가지고 고치고, 아 여긴 문맥이 좀 이상한 것 같애, 그럼 또 받아서 본인이 고치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아 내 생기부에 이런 활동을 했었구나, 돌아보면서 또 보충을 하고 그렇게 갔던 거 같아요. 그런 활동이 없으면, 자기가 자기 생활기록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 한 아이들 중에도 자기 생기부를 정확히 들여다본 애는 특목고 준비한 아이들 밖에 없어요. (J자사고 학부모)

자기소개서 작성뿐만 아니라 면접 준비를 위해서도 역시 학원을 통한 사교육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에 관한 요령을 익힌다든지, 지원할 학교별로 면접질문의 구성과 유형을 파악하고 숙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원에서 하는 면접이 있어요. 이렇게 얼마 주면 몇 주 동안 뭐 얼마 해 가지고 면접이 있어요. 모의면접도 있고요. 계속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해서 면접 때 어떤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하고 H자사고 같은 경우는 공식 질문 하나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거 하나하고 또 이렇게 한두 개 정도 해 가지고 하거든요. (H자사고 학부모)

M자사고반, G자사고반, K자사고반 이렇게 나뉘서 거기에 대한 면접 유형 가지고 오고, 자소서 유형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실제 상황을 해 놓고, 원장 선생님이 앉아서 1번 면접관, 부원장이 2번 면접관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답을 하는데, 똑같은 유형을 물었을 때, 내 앞에 애가 답했을 때, 애가 긴장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준비도, 연습 안 한 애는 긴장을 하고, 연습을 한 애는 딱 받아쳐서 다른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K자사고 학부모)

이처럼 면접 상황과 최대한 유사한 상황을 조성해 놓고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학원 면접 준비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면접 지도의 결과 학생에게 나타난 변화를 면접 대비 전과 후로 나누어 영상으로 촬영해서 학부모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면접 시 앉아 있는 자세, 대화 할 때의 시선처리, 말하는 분량과 같은 기술을 가르치고 숙달시키는 것이 사교육을 통한 면접 준비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전문적인 사교육 업체를 찾아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은 고교 입학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설사 원하는 고등학교로의 입학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유용한 경험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준비하면서도 사교육을 받는 이유와 목적은 그것이 선행학습 성격의 사교육이든 아니면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 성격의 사교육이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인 대학 입학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3.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인재선발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창의인성인재를 양성하고 건학이념에 부합한 방향과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개선하기 위한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 매뉴얼(한국교육개발원, 2015)에 명시된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추진 배경에 따르면 ‘학습능력뿐만 아니라 인성을 갖춘 글로벌 핵심인재 선발 및 양성이 가능하도록’ 입학전형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학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인재선발을 의도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어고의 경우, 본래 어학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외국어고의 설립목적과는 관계없이 주요 과목의 지필고사와 주로 영어인증 시험 점수에 의해 학생을 선발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에서는 지필고사에 의한 선발을 폐지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경험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어학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외국어고·자사고 설립목적에 적합한 인재선발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1) 매뉴얼에만 충실한 인재 선발 과정

면담에 참여한 외국어고 4개교 모두 고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인재선발이라는 측면보다는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 매뉴얼을 충실히 따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입학전형이 운영되고 있었다.

학교가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형 자체가 우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하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 전형을 개발하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어떤 정책 연구 기관에서 학교에다가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뉴얼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매뉴얼화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E외고 교사)

자사고의 경우에도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통해 각 학교의 건학이념이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교육청의 승인과 관련되는 문제인 만큼 입학전형의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로 인해 고교 나름의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을 나타내었다.

저희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깐 교육청에서 승인을 안 내주면 입학요강이고 뭐고 할 필요가 없어서 거의 다 그냥 매뉴얼대로 간다고 보는 게 맞죠. 정말 자기주도 학습전형 학교만의 인재상을 뽑으라고 하는데 그 틀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말하자면 우수한 학생, 학교기준이 원하는 학생을 뽑는 데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문제되지 않을, 그러니까 감사에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그러니까 학생을 뽑는 데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생기지 않을 그런 것들에 주력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것만 고민하게 되는 거죠. (K자사고 교사)

고교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선발 시 감사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시하다보니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고교가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을 토로한다.

자립형 사립고로 출발한 자사고(자립고)들의 경우에도 자기주도 학습전형 매뉴얼의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말한다. 따라서 자립고 본래의 설립 기반이기도 한 학생 선발의 자율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물론 우리도 자율성을 발휘하려고 교육청하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죠. 우리는 뭔가 다르다. 이렇게 해 보겠다 저렇게 해 보겠다 하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 한 개 학교고 자기들의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준수해 주길 바라고. 그런 구조적인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발휘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H자사고 교사)

이처럼 자사고들은 교육청의 지시, 공문, 감사 등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교육부 및 교육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학전형에서 자사고의 자율성을 발휘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학교 여러 측면에 있어서 교육부 정책을 잘 따라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호응해 줄 부분은 호응해 주고 도와줄 부분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중략) 그동안 해 놓은 것도 아깝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또 그렇게 되면 어떤 교육부든 교육청이든 뭔가 일단 안 맞으면 어쨌든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F자사고 교사)

또한 '전국단위' 자사고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사고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 자사고가 정부 정책의 흐름을 쉽게 거스를 수 없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 하나는 여론의 문제예요. 일선 학교는 정부나 언론사처럼 여론을 형성하고 유포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취약해요. 그러니까 G자사고가 만약에 사교육의 주범처럼 여론에서 몰아가면 그건 사교육의 주범이에요. 만약에 교과면접을 G자사고에서 한다 그러면 계속 때리겠죠. 때리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사교육의 주범처럼 모는 거죠. 그런 여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번 찍히면 나올 수가 없어요. (G자사고 교사)

2) 우수 학생 선발에 초점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2단계 전형 요소인 면접에서는 학생들에게 교과 지식과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접만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별해 내기 어렵다는 것이 외국어고와 자사고 입학담당 교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처럼 외국어고와 자사고에서 학생 선발 시 고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인재선발의 측면보다는 우수한 학생 선발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 지식을 못 물어보니까 참 일반적인 (면접) 질문이에요. 일반적인 질문인데 그중에서 아이들을 골라야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질문을 못 묻게 하는 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게 또 선행교육이 될 수 있고 하니까. 못 묻게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대체 뭘 물어봐서 애가 다른 애보다 우수하다는 걸 가려내는지 그게 정말 딜레마인 거예요. ...애가 말 잘하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사실 언변만 좋지 아닌 아이들도 있거든요. (A외고 교사)

입학담당 교사들은 학생의 다양한 자기주도적 학습 활동과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적을 수 없도록 한 것과 면접을 통해서도 그 부분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학교 내 활동은 물론이고 그 외 교육유관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수행한 활동들에 대해서도 기록이 이루어지고 입학전형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은 확인할 수 없고 학교 안에서 수행한 활동만을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에서 말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애들 뽑을 때에 이렇게 바뀐 이유가 성적만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 뭐 자율성, 창의성 그런 걸 보고 뽑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류에 제약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걸 보라고 해놓고 그런 걸 표현할 그걸 다 차단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쓰면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했다 그것밖에 못 쓰게 되어있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서류가? 애들이 가능하면 자기활동 이런 걸 다 적을 수 있게 했었어요. 지금은 학교 바깥에서 하는 모든 걸 쓰지 말라고 이렇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이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맞는 애들을 뽑으라는 건지 저는 진짜... 이런 현실입니다. (M자사고 교사)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된 문제제기와 더불어 자사고에서 학생 선발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으로 성취평가제 문제가 제기되었다. 같은 성취도 수준 A라 하더라도 전국의 중학교들 간 수준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A라는 자료만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상황의 어려움을 지적한다. 즉, 1단계 성적이 거의 다 A인 학생들 중에서 면접만을 가지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내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며, 그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14학년도까지는 석차백분위로 뽑았기 때문에 면접이 그냥 형식적으로 가도 변별이 다 됐다는 거지. 그런데 2015학년도부터 성취도로 이게 바뀌면서 그때부터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찌란 말이나. 90점부터 100점 사이의 애를 대려다 놓고 어떻게 가리나 이거를 10분, 15분 면접을 해가지고 당신이 한 번 해볼래? 가려지겠나? 그러면 말 잘하는 여학생들이 많이 뽑히지 않겠나? 등등 그래서 작년부터 교육부하고 계속 시도를 하곤 했지만 잘 안 된 거죠. (H자사고 교사)

자사고 입학담당 교사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대학입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낼만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고교 학생선발의 '기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처럼 자사고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제가 대학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자사고 입장에서는 학생의 중학교 '성적'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신성적이 성취도 수준이라는 점은 자사고에서 학생 선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대학 입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학교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애들을 뽑을 때에 기본적으로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애들이 졸업해서 어떻게 진학을 할 것이냐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생이 어떤지를 볼 수밖에 없고 저희도 그것하고 똑같이 애들을 뽑는 거죠. (M자사고 교사)

3) 자기주도성과 인성에 대한 평가 기능 강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외국어고와 자사고의 입장에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혹은 성적 우수자를 뽑는 데는 애로 사항이 있지만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평가기준인 자기주도성이 높고 인성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인성 면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애들이 왜 인성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는 시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실력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를 봐요. 인성도 보고, 학업능력도 보고, 의지도 보고. 그렇게 때문에 아이들이 인성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런 쪽으로 노력도 하고. (A외고 교사)

자사고의 경우, 과목별 성취도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 학생들의 자기주도 역량, 적극성, 성실성에 주목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발전 및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올해 1학년들을 받아 보니까. 애들이 일단 성과라면 뭐가 있냐면 인성이 좋다. 왜냐면 면접을 강
화시키다 보니까. 면접을 보면 인성부분도 드러나 버리거든. 그래서 인성부분에서 애들이 인성도
밝고 예의도 바르고 적극적이고 정말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자기주도에 맞는 그런 애들. 자기주도
역량이 강하고 인성이 좋고 적극적이고 그런 애들이 들어왔다. 그런 점에서는 높게 평가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측면이 있다. (H자사고 교사)

그러나 자사고 교사들 중에는 면접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인성’ 영역과 관련하여 그 중
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인성의 평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
도 있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에서는 학생의 인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체제와 능력이 없다고 교사들은 지적한다.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그 다음에 인성부분, 이 두 부분을 써야 돼요. 이 두 부분인데, 한 6:4, 7:3,
8:2 로 비율을 굉장히 줄여 놓았어요. 왜냐, 평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 좋다고 써 놓지, 나 나쁘다
고 써 놓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말할 때도 인성 좋다고 얘기하지, 내 인성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몇 마디 물어서 이 아이의 인성이 어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M자사고 교사)

‘인성’이란 영역은 서류나 단시간의 면접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관계로 지금과 같
은 입학전형 운영의 체제 속에서는 학생의 ‘인성’을 평가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인성 영역에 대한 점수 배점도 낮고 급간 차이도 작게 만드는 등 면접을 통한 인성
영역 확인에 큰 기대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현행 고등학교 체제 내에서 입학전형의 개선을 통해 중학교 교육 정상
화, 사교육비 경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인재 선발이라는 분명한 정책 목표를 위하여 도입되었
다. 2011년 신입생 선발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조금씩 변화와 개선을
거쳤지만 지필고사 지양, 사교육 유발 요소의 방지라는 점에서 그 방향성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
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으로서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그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진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첫 번째 목적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중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습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기르고, 자신의 잠재능
력을 탐색 및 발견하도록 하는 데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

았다. 그 결과, 외국어고와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업과 동아리 활동 등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중학교 교육에 상당 부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학생들의 학교 행사 참여, 동아리, 독서, 봉사 활동을 촉진시킨다는 이재덕 외(201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지 않았는데, 중학교에서 학생의 고교진학 결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뿐 자기주도 학습전형에서 요구하는 학생의 중학교 활동 이력을 교사가 생활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주도 학습전형 제도의 추진 성과를 분석한 박효정·김효원(2011)의 연구 결과에서 중학교 교사의 진학 지도 역할이 강화되어 중학교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는 교사 자신의 기대와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의 두 번째 목적은 고교진학을 위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것이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외국어고의 경우 영어 이외의 과목에 대해서는 사교육이 감소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사고의 경우에도 고교입시를 목적으로 한 사교육 감소에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고 있었으며 이재덕 외(201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면이 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실시되기 이전 ○○외국어고 준비반, △△과학고 준비반이 학원가에서 성행하였던 현실을 되돌아보면 영어 한 과목의 내신 성적만을 고려하는 외국어고 자기주도 학습전형과 내신 성적의 비중이 줄어든 자사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 역시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모고 진학 계획이 사교육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이광현(2012)과 박현정·이준호(2009)의 연구 결과와는 배치되는데 이는 선행연구들이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된 직후에 수행되어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영향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입시 대비를 목적으로 한 '선행학습' 성격의 사교육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소개서나 면접과 같은 자기주도 학습전형 요소 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새롭게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사교육의 목적이 고교입시 대비에서 대학입시 대비로 바뀌었을 뿐 사교육 자체를 감소시키는 데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고교 입시전형 요소의 변화가 사교육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가설에 대한 재고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주목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세 번째 목적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인재선발로서, 고등학교가 학생을 선발할 때 오로지 성적우수자를 선발하는 데만 초점을 두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외고 및 자사고의 차별화된 '설립목적'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통해서도 여전히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낼만한 '성적 우수 학생' 선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외고 및 자사고의 입학 담당 교사들에 따르면 고교의 입장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매뉴얼

에 충실해야 되는 이유로 해당 고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토로한다. 그러나 외교와 자사고가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는 제약 이전에 학교가 어떤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지, 어떤 학생을 길러내고자 하는지에 대한 교육철학과 그에 근거한 인재상이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외교와 자사고 학생선발의 방향과 초점이 '성적우수자 선발'로 수렴되는 것은 외교 및 자사고가 학생의 '능력'을 오로지 '성적'이라는 단일한 지표로 환원하여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외교나 자사고에서 '성적우수자 선발' 외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인재선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는 것은 대학의 학생선발기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외교 및 자사고 입학 담당 교사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표방하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인재선발'이라는 목적은 대학의 학생선발 기준과 그에 따른 대입전형의 초점이 '성적'으로 단일화되는 데서 벗어나 학생 '능력'의 다양한 측면이 표현되고 그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질 때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진단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실태와 교육적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중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중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현재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시행, 인성교육진흥법의 통과 이후 다양한 인성교육 관련 활동이 진행되고 있거나 또는 진행될 예정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자기주도학습영역과 인성영역과 중학교 교육과정과의 보다 밀접한 연계를 통해 중학교에서의 활동이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준비하는데 있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교 밖에서보다는 학교 내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준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인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교사,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외국어고 및 자사고의 입학설명회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요소들이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학생 스스로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학생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중학교 교사의 도움을 통해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사고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자사고는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을 그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대학 입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유사한 목표를 가진 학생들은 특별한 입학전형으로 선발해야 할 이유가 없다. 자사고의 본래 설립목적이 교육

과정 운영의 자율화에 있는 만큼 학생들이 입학 후 경험할 교육에의 차별이 아닌 입학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것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5년부터 서울 지역 자사고의 경우 1단계 전형에서는 성적 제한 없이 추첨을 통해 정원의 1.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는데, 굳이 2단계에서 복잡한 면접 전형을 통해 자사고 학생을 선발해야 할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학교에서 외국어고나 자사고에 입학하고자하는 개별 학생들을 따로 분류하여 고교 입학을 특별하게 준비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의도하듯 학생들이 중심이 된 다양한 활동들이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활성화되는 문화를 형성하고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중학교 3학년 교사들은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모두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전형과 같이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준비해야 하는 소수의 학생들만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학교 교육 활동을 전반적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유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교과영역에 비해 소홀히 여겨지는 비교과영역의 중요성이 공유되는 가운데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비교과영역의 활동들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잠재역량을 발견 및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체험 활동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학생들이 학교에 의해 이미 계획되고 정해진 활동들에 단순히 수동적으로 참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관심에 따른 활동들을 기획 및 운영해보는 경험을 통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3학년도 자기주도 학습전형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매뉴얼**.
- 김미숙, 강영혜, 박소영, 황여정, 이희숙, 최봉현, 김현철(2007). **사교육 실태조사 및 사교육비 경감방안 연구(CR 2007-05)**.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희규(2010).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전형 실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17(1), 113-130.
- 박균달, 김현진, 이수정(2011). 학교불만족과 특목고 진학희망이 중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9(3), 277-304.
- 박현정, 이준호(2009). 중학생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진학계획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0(3), 213-238.
- 박효정, 김효원(2011). **고입 자기주도 학습전형 제도의 운영 보완 방안(OR 2011-03-1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변수용, 황여정, 김경근(2012). 위세 높은 대학 진학에서의 외고 효과. **교육사회학연구**, 22(3), 133-162.
- 오범호, 김성열, 오세희(2013). 자율형 고등학교의 자기주도적 학습전형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수산해양교육연구**, 25(1), 40-52.
- 이광현(2012). 특목고, 자사고 진학계획이 초등학생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2(2), 155-178.
- 이재덕, 유솔아, 차성현, 정성수, 이희숙, 김혜영(2014). **자기주도 학습전형 운영 성과 분석 연구(CR 2014-27)**.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재덕, 차성현, 정성수, 이희숙, 김혜영(2014). 외국어고등학교 자기주도학습전형 정책의 성과 평가. **교육학연구**, 52(4), 27-54.
-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6학년도 자기주도 학습전형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매뉴얼**.

- * 논문접수 2016년 2월 2일 / 1차 심사 2016년 3월 11일 / 2차 심사 2016년 5월 6일 / 게재승인 2016년 6월 3일
- * 백선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교육과정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 * E-mail: paiksunhee@gmail.com
- * 박진아: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평생교육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와 경인교대 교육학과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 * E-mail: menowthen@naver.com

Abstract

Practices of Self-directed Learning Admission for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and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Paik, Sunhee**

Park, Jin A***

This study aimed to examine practices of how self-directed learning admission (SDLA) has been implemented for the process of admission procedure i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and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Although the SDLA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11, little has been known regarding whether the SDLA has achieved its policy goals such as better impacts on middle school education, decrease of private education, and selecting student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each high school. Focus group interviews (FGI hereafter) were implemented for high school teachers, parents of 9th graders, and middle school teachers of 8th graders. The FGI results found that the SDLA had in part positive effects on middle school education in that students who prepared for the SDLA were more willing to participate in non-subject activities, but the parents reported that they expected more support from middle school teachers. The interviewees perceived that private education for high school admission has decreased, but some students still needed new types of private education for helping them to prepare for interview and writing an essay. All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and private autonomous high schools should have the same criterion and process as required by the SDLA manual, high school teachers reported that they did not have autonomy in terms of selecting the right students for the purpose of high schools, but regardless of high school types, high school teachers expected to select students based on their academic performance instead of the characteristics and talents of each high school.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ions for further policy making for SDLA were made.

Key words: Self-directed learning admissio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high school admission procedure

*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nalyzing the data from the study titled as The Historical Changes and Current Status of High School Admission Selection.

** First author

*** Corresponding author